

[국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3일째

이, 예비군 동원령 지상군 투입 초읽기

사망자 300명 넘어서...하마스 결사항전 돌입

이스라엘이 29일 3일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국경지대에 탱크와 병력수송을 장갑차들을 대거 집결시키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6천500명의 동원령을 승인하고 가자지구 접경지대로 병력을 집결시키는 등 지상작전에 돌입할 태세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맞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을 나설 것임을 다짐해 양측의 분쟁은 전면전을 향해 치닫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7일과 28일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은 데 이어 29일에도 3일째 공습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류 등을 반입해온 것으로 알려진 터널과 교도소, 급속공장 등에 폭탄을 쏟아부었다. 29일 새벽(현지시간)에는 하마스의 문화적 상징인 이슬람 대학을 폭격했다.

또 이스라엘 해군 함정들이 하마스 건물들을 겨냥해 가자 항구를 공격했다고 하마스 보안관이 전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하마스 정부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아의 집무실 인근 대피소를 공격했으나 당시 하니아 총리는 집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또 29일 하마스 내무부 청사를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발생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캐스트 리드(CAST LEAD)'라는 작전명으로 27일 오전 전투기 60여대를 동원, 불과 몇분만에 50여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28일까지 230여개의 목표물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307명, 부상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다고 가자지구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하마스는 조직원 180명이 사망했으며 여성

16명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가자시티 인근의 제발리아 난민캠프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으로 14개월 된 아기와 여성 2명 등이 숨졌다.

지상군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28일 각료회의에서 예비군 6천500명의 동원령을 승인한 데 이어 가자지구 접경지대로 병력을 신속 집결시키고 있다. 실제로 29일 국경지대 곳곳에는 수십대의 탱크와 병력수송을 장갑차(APC)가 집결하는 등 중화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8일 가자지구 남부지역의 난민 캠프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자 공포에 질린 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서둘러 대피하고 있다.

길거리 피범벅 시신 즐비...가자지구 아비규환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27, 28일 이틀에 걸친 공습으로 280여 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이 지역에서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폭탄이 투하된 가자지구에서 피어오른 회색의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피폭 시신들만은 폭삭 주저앉아

햇더미로 변했다.

하마스 보안시설물 주변은 곳곳은 하얀 먼지와 붉은 피로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화염에 그을리고 으깨지고 피로 범벅이된 시신들이 시트에 대충 쌓인 채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여기 머리가 있다”고 소리 지르며 폭격으로 떨어져 나간 시신의 일부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가자지구 최대병원인 알-사라 병원 시체 공시소에는

사람 1개당 시신 3구가 쌓여 있는 등 이미 폭격으로 숨진 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나마 시체 공시소에 안치된 시신들은 사정이 나은 편. 시신을 알 수 없는 수십구의 시신들은 시트에 쌓인 채 공시소 벽 한쪽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응급실은 폭격으로 부상한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비명 소리로 가득하고 복도마다 부상자들로 빼곡하다.

팔레스타인 남부의 국경마을인 라파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숨진 14명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전통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자리는 텅텅 비어있다. 이스라엘군의 새로운 공습을 두려워 하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자녀를 둔 아말 하산(38·여)은 다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다음 폭격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다음 사망자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불안에 떨었다.

엔고 영향...일본인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한국

아시아지역 중 2위 싱가포르, 3위는 홍콩

일본인들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한국을 가장 여행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온라인 리서치기업의 한국 지사인 마크로밀 코리아는 일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국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2명(34.2%)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 한국이 여행 희망 국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싱가포르(30.9%), 홍콩(30.8%), 대만(29.7%), 태국(22.8%), 중국(17.5%), 인도네시아(17.2%), 인도(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본인이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것은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6%가 엔화 강세가 한국 여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가 33.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리가 가까워서'(24.9%), '쇼핑하기가 용이해서'(15.2%), '국내 여행 대비 저렴해서'(13.5%), '관광 명소 및 볼거리가 다양해서'(4.4%) 등의 순이었다.

한·미, 北 WMD 제거대책 마련중

<대량살상무기>

외교적 협상 거부뿐 군사력 이용도 검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작전을 관장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USPACOM)와 한국군은 북한의 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이미 구성·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등 WMD에 맞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의식, 언급을 피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의 WMD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관측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근거가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기구까지 설립했다는 점은

북한의 WMD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발언과 영향력을 의식, 언급을 피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의 WMD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관측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근거가 뒷받침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NDU) 부설 WMD연구센터가 지난 5월 발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北 리더십 안정...모든 게 안정적”

김하중 통일장관 “남북관계 발전할 것”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동정 보도 빈도가 높아진 데 대해 “그런 상황을 보면 북한 리더십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지난 10월4일 추곡경기 관란 보도 도 이후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 22차례 공식 활동을 한 것으로 북한 매체에 보도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화를 제외하면 북한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12·1 조치 등 대남 강경 조치를 주도하는 북한내 세력과 관

련, “군부가 대남 강경책을 주도한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어 그의 의견이 주류지만 어떤 이는 군부가 아직 대외관계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우리는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뜻이니 노력하면 좋은 때가 올 것이라며 “내년 들어 불침번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에 때가 되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뒤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비관해도 대화 제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를 제외하면 북한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12·1 조치 등 대남 강경 조치를 주도하는 북한내 세력과 관

련, “군부가 대남 강경책을 주도한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어 그의 의견이 주류지만 어떤 이는 군부가 아직 대외관계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우리는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뜻이니 노력하면 좋은 때가 올 것이라며 “내년 들어 불침번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에 때가 되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뒤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비관해도 대화 제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를 제외하면 북한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12·1 조치 등 대남 강경 조치를 주도하는 북한내 세력과 관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an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duct prices and company inform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items like rice, oil, and other goods with their current and highest prices.

Advertisement for (주)제주무궁화관광 (Jeju Mugunghwa Tourism)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It highlights a special offer of 89,000 won for a 2-day 3-night trip,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